

본문: 요한복음 3 장 14-18

제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 the world)

1.

지난 수요일은 교회력을 따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었습니다.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Lent)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순(旬)은 10 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이니 40 일이란 뜻이죠. 40 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는 사순절 기간도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동방교회(Orthodox)와 서방교회(Roman Catholic)가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매년 3 월 21 일의 춘분이 지나고 만월(full moon)이 있는 후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만월이 일요일에 뜨면 그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이 달라지는 것이죠. 음력으로 생일을 지금도 지키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올해는 춘분 후 만월이 4 월 4 일에 뜨기 때문에 4 월 9 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면 예수의 부활이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음의 권세들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음을 극복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절이 솔직히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만져본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츰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별세하면서 부활을 의미있게 지키기 위한 부활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을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유월절 식탁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해 금식하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이런 의미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더 감격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절제와 경건의 실천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했던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다.”는 이 거룩한 명제가 사순절의 중요한 동기인 겁니다. 사순절은 온전히 우리를 십자가에 못박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경험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 일년의 영성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가을에 추수를 하면 창고에 쌀가마가 두둑이 쌓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영혼의 가을걷이(Harvest)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일년 농사를 이때 바짝 신경 써서 짓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순례의 힘으로 우리는 한 해를 버틸 힘을 얻게 되니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부활절까지 함께 걷게 될 사순절 순례의 여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순례란 말을 쓰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순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기 위해 우리는 길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를 통해 예수의 마음과 잇대어지고 예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더욱 풍성해 지리라 믿습니다.

2.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던 말씀이죠. 이 간단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처럼(헬라어-hutos, οὕτως / in this manner, like)’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 장 1 절부터 15 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 장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어떤 배경에서 진행된 것인지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이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전체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종교장사였습니다. 그들은 헤롯가문에 가져다 바친 뇌물을 메꾸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 세력 중 하나가 71 명의 대표로 구성된 종교와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Sanhedrin Assembly)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성전 시스템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적 중의 한 무리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율법선생님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머리, 시작,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archo'n 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didakalos'라고 부릅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Nike(victories)와, Demos(People)가 합쳐진 말입니다. '승리한 백성'(victories people)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선호한 것을 보면 그가 헬라사상에 노출된 선생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찾아오기 직전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대적들은 한껏 독기가 올라 있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전 정화 후에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란 인물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겁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비밀리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낮에 찾아가 공개라도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루살렘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뜨겠죠. "니고데모 예수와 손잡다.", "좌파 니고데모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예수와 만나다." 이런 기사들이 났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2 절)."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한데 왜 당신은 율법을 함부로 대하시고 성전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나는(born from above)'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는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뿌리째 흔들려 보는 경험 있어야 거듭나는데, 니고데모는 율법종교에 갇혀 있으니 그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보좌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불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은 노력에 의해서 맞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성령님을 초청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바람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3.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모세 때의 뱀 이야기를 끌어 오십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구조를 이해해야만 '이처럼'이라는 뜻이 이해가 될 수 있기에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입니다. 이는 성령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자 '이처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수기 21 장 4-9 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14-15 절)."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겪게 되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 두 명의 정탐꾼 중에 10 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9 년의 광야 길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꾸불꾸불하고 거칠다 보니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도자 모세까지 뭉뚱그려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5 절)." 이 원망의 말은 출애굽의 구원사건을 원천 무효시키는 언어적인 도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참을 수 없으셨고,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로 '불뱀'(venomous snake)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입에서 불이 막 나오는 뱀이 아니라 맹독을 가진 뱀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심장이 파열되며 아우성 치다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살려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그들을 물었던 불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뱀을 죽여서, 즉 죽음을 죽여서 불뱀과 똑같이 생긴 '눗뱀'을 매달라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눗뱀'을 쳐다보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파충류인 뱀에 물리면 우리 몸에서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피를 타고 독이 심장을 향해 쇄도해 가겠죠. 그런데 그 눗뱀을 쳐다보는 순간 몸에서 무슨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라도 하듯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생화학적인 반응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같은 생화학적인 요법 같은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죠. 무슨 풀을 뜯어서 먹으라는 게 더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외과적인 진단이 아니라, 믿음 요법을 통해 이걸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낫는다는 이 놀라운 상상력을 백성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위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불뱀 자체를 때려 죽여서 눗뱀을 만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인 불뱀을 죽여서 눗뱀을 만든다는 말은 죽음을 한 번 더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의지를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으로 눗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생화학적인 상관 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죽음의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불땀에 물려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불땀을 죽여 땀땀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죄는 에너지이고 질량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고 가야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을 자신이 짊어 지시고 죽는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땀땀을 장대에 매다는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불땀이 쏟아낸 독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스스로 매맞는 불땀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땀땀이 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납니다. 땀땀처럼 매를 맞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자발적인 고난과 순종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땀땀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아들의 아름다운 순종과 희생을 쳐다보고 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보좌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의 방향성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땀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증거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끊임 없는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레디컬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이 죄 없이 순결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갖는 속뜻입니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의 독생성자(begotten son) 급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밀착하여 추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 따름이(follower)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에 더해진 고난 때문입니다. 그는 남수단의 성자로 불리웁니다.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남수단 톤즈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살레시오(Salesio) 수도회 소속의 선교사로서 남수단에서 선교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방송을 타고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남수단일 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북수단과의 내전으로 초토화가 된 기독교 국가인 남수단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곤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남수단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신부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분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다른 이의 짐을 지고 그들을 위해 매를 맞는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온 바람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뱀처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뱀처럼 드리면서 다른 이들의 짐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라온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겨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삶에 뱀이 되어 치유해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1 더하기 1 은 2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일에는 선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복제품(Copy)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임의로 불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불고 우발적으로 불기에 어느 누구에게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성령의 바람에 노출된

자들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늦뎨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속에는 늦뎨으로 살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을 물어 뜯어 죽이는 불뎨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늦뎨이 되시어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늦뎨의 삶이 되기를 훈련하며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는 기간입니다.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여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19 절) 여러분이 행하는 사랑과 진리의 삶을 통해(21 절)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